

교회목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간 충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계웅

# 감사의 출발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 오늘,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2·3부), 특별 찬양(찬양예배)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어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세상에 매어질 때  
우리는 삶에 파묻혀 감사하는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인타깝게도 많은 사람, 많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했다는 그릇된 생각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와 원망이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도 순간마다 원망하고픈 본성이 살아나겠지만  
그들은 곧바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금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으며,  
그들의 손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참된 감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 2010년 교구총회

일시 : 오늘, 주일4부예배 후  
장소 : 본당  
대상 : 모든 교구가족

\*교구모임은 교구총회로 대체합니다.

## 기도함으로 깨어,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라!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8)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절뚝매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말씀하셨습니 다. 또한 초대교회가 술한 핏박을 받았음에도 부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행 1:14)는 말씀에 있음 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단순히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 연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 해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 다. 무릎을 꿇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롬 8:26). 기도를 문제해 결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말고, 기도가 곧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뿐인 회개 와 자기 부인의 위선을 버리십시오(눅 20:47). 자기 부인은 기도로 나타납 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지금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 습니다(벧전 4:7). 매순간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벽기도회에 꼭 나오십시오. 월요일에는 ‘메시아의 죽음’, 화요일부터는 고 린도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를 붙들어야만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요 즘 교역자들이 회개하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장로, 안수집사, 권 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 4:2).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영적 생명력을 새벽에 경험해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 THE SECRET OF CONTENTMENT

*<sup>(9)</sup>But godliness actually is a means of great gain when accompanied by contentment. ...*

*<sup>(9)</sup>But thos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snare and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which plunge men into ruin and destruction. <sup>(10)</sup>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sorts of evi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1Timothy 6:6~10)*

Everyone in the world seeks contentment. Many hope to gain contentment through wealth, fame and success. They think personal achievement, higher education, good employment, and honorable deeds will help them to obtain the feeling of calm and pleasurable satisfaction, but they cannot find it. How can a person be content? A thankful heart is the key to contentment. Thankful people have discovered the secret of real contentment. They stay positive in a negative world. Why are thankful people content?

Thankful people rejoice in what they have. Whatever you have, you should be satisfied. Hebrews 13:5 says, "Make sure that your character is free from the love of money, being content with what you have; for He Himself has said, 'I WILL NEVER DESERT YOU, NOR WILL I EVER FORSAKE YOU.'" You have everything if you have Jesus Christ. Do you have Jesus? Covetousness draws you into the world, while contentment frees you from the lusting of possessions. All earthly things eventually go away, and in the interim they sometimes get lost or are replaced by something else. Paul found contentment because he was continually thankful,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Thes. 5:18). I hope you have this kind of thankfulness in your heart. For real Christians, if they practice their faith, are always satisfied. Paul's contentment was not based on what he had; Christ made him content in all conditions. He said, "Not that I speak from want,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in whatever circumstances I am. I know how to get along with humble means, and I also know how to live in prosperity; in any and every circumstance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filled and going hungry, both of having abundance and suffering need" (Phil. 4:11~12). Understanding that lack is not necessarily a sign of God's disfavor, nor plenty of His approval, helps you to live the will of God. Thankful people recognize the transience of all things. You are born broke and will die the same way, "For we hav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so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it either. If we have food and covering, with these we shall be content" (1Tim. 6:7~8). You can be content with just food and clothing. Whatever you have, be content.

Thankful people refuse to be ruled by what they do not have. Sadly, the desire to be rich rules the hearts of many people.

Such people find that whatever they have is not enough, and their desire for more leads to more and more sin. They are led to being caught in the devil's trap, "But those who want to get rich fall into temptation and a snare and many foolish and harmful desires which plunge men into ruin and destruction" (1Tim. 6:9). The love of money brings very strong trouble,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sorts of evil, and some by longing for it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1Tim. 6:10). Clinging to money cost the rich young ruler his soul in hell (Lk. 18:23). Breaking free from the love of money brought salvation to Zaccheus, "Zaccheus stopped and said to the Lor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 And Jesus said to him,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too, is a son of Abraham'" (Lk. 19:8~9). Chasing money is not just foolish but dangerous. People spend years in prison and lose family over such nonsense. Are you ruled by things you crave, but do not have? Have you lost your way? The Bible says,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Lk. 19:10).

Thankful people recognize that God gives them all they have! 1Timothy 6:6 says, "But godliness actually is a means of great gain when accompanied by contentment." Cash without Christ caters to carnality. Possession without the Prince of Peace never satisfies. Contentment comes from knowing and serving Jesus Christ. Responding to Christ's love in faith brings new life,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2Cor. 5:17). Remembering that you are a sinner saved by grace makes you thankful. Everything you have is from our loving Savior's hand. You should constantly confess this truth,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 (Jas. 1:17).

Thanksgiving Sunday has passed, but I'm still preaching a thanksgiving sermon. I just can't stop because I'm so thankful. Are you content Christian? Do others recognize the reason for your peace? Your contentment can draw others to the Lord. Practice your faith in thankfulness and you will always be content. Amen. 

## 다음 주일 설교

##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려서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디모데전서 6:6~10)



김성완 목사

세상 모든 사람은 만족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와 명예, 성공을 통해 만족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아실현, 고등교육, 훌륭한 직업, 사회복사와 같은 고귀한 행동을 통해 잠깐하면서도 기분 좋은 충족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얻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자족의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참된 자족의 비밀을 발견해왔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왜 자족이 있을까요?

##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기뻐한다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기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거기에 자족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5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탐욕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끌입니다. 반면 자족은 여러분을 소유욕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 자족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진정함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족합니다. 바울의 자족은 자신의 소유에 있지 않았습다. 그리스도로 인해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하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 궁핍이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심에 대한 표정이거나 풍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대한 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딤후 6:7~8). 단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자족하십시오.

## 감사하는 자들은 가지지 못한 것에 의하여 지배받음을 거부한다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며 이러한 욕망은 그들을 점점 더 죄악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의 밧에 걸리고 맴돕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려서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딤후 6:9). 돈을 사랑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돈에 대한 집착으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넘기는 대가를 치렀습니다(눅 18:23). 반면, 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된 삭개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 19:8~9). 돈을 좇아가는 것은 어려석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무가치한 것 때문에 많은 세월을 감옥에서 써거나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면서도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아는 자이다

감사하는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합니다. 디모데전서 6:6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은 욕심의 욕망에 빠지게 합니다. 평화의 왕이 없는 소유는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참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데서 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화답할 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사랑하는 우리 구주의 손으로부터 나온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평안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족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ㄴ

#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메시아의 죽음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11. 11)

##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도행전 9:5)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성경의 초점을 모르거나 이에 관심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비슷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으며 이에 맞추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사는 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썼다.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연구하며 지키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가 옳았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데 앞장섰다. 그는 더 나아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다(행 9:1~2).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사울은 강렬한 빛으로 인해 쓰러졌다(행 9:3).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행 9:4). 이 소리에 놀란 사울은 “주여 누구신지라고 하고 외쳤으며 이윽고 그는 또렷한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행 9:5).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을 박해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힘썼는데 바로 그와 같은 행동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깨달았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 **예언된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던 인류구원을 위해서 예언된 구주이시다(창 3:15).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리셨다(사 7:14, 9:6~7; 미 5:2). 또한 신약의 첫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것이라는 사실도 미리 밝히셨다(마 40:3). 심지어 하나님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를 움직이셨다(골 2:1~5). 이처럼 하나님은 그 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했으며 철저히 지켰던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 인류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외면했다.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줄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가르치는 오늘날의 교회, 세상에서의 행복할 삶을 꿈꾸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며 성경을 이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아닌

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요 15:18, 16:1~2).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미움을 보겠느냐?”(눅 18:8)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고를 잊지 말자. 복음과 관계없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기초한 달콤한 유혹에 헛갈리지 말고 청신을 차리자. 은혼의 때가 지나면 심판의 때가 이른다(갈 4:4~5). 예언된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너무 연약했으며 볼품이 없었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다(사 53:2~3).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끔찍한 고통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지만 거부하지 않으셨다(마 20:18~19). 이것이 하나님에 원하는 것이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였던 것이다(사 53:10, 12).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유일무이한 속건재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요 1:36).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벽이 허물어졌다(막 27:50~51). 이제 구원의 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눅 23:43; 요 3:16).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뿐이다(요 6:37). 이처럼 단순한 구원의 방법을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 예수님만 믿자.

●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요 2:19).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 28:5~6).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로마의 역사서에 기록된 정도로 역사성을 가진 명백한 사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골 1:20)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20)가 되셨다.

●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분명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창 22:20).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언된 구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만을 바라보는 것이다(요 14:1~3). 우리가 앞설 때 반드시 실패한다. 진실로 회개하며 반드시 자기를 부린다고,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 가자.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골 2:21)로 자기 십자가를 지며 좁고 험한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 메시아의 죽음 9

## 마태복음에 쓰여진 특별한 자료와 고난의 이야기

으며 유대 역사와 정치에 능통한 서기관이었던 만큼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마가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지도자들 중에 서기관을 자주 포함(대제사장 12회, 서기관 5회)시킨 반면에 마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대제사장 15회, 서기관 2회). 마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인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데를 중점하였다.

세관이나 서기관이었던 마태(마 13:51~52)는 모든 표현이 비록 정확하였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살 때 그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혔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가버냐(마 26:51, 57)를 만난 일이라든가 당시 유명했던 죄수 바리새(마 27:16~17)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마 27:28)라는 구절처럼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마태는 지령에 대한 배경 설명과 표기에 대해서(마 27:8)했으며, 당시 떠돌던 풍문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마 28:15).

특히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에 없는 특별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가롯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는 대화에 대한 것(마 27:3~4)은 마가복음에 없다. 가롯 유다가 자살한 땅이 토기장이의 밭이며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마 27:7~8). 마

태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의 신학적인 견해는 마가와 달랐다. 마태 자신이 세관이었

대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전한 기록히 사적인 말(마 27:19)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한 뒤 손을 씻으며 한 말(마 27:24~25)에 대한 자료까지도 찾았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는 것과 가롯 유다에 대한 평가도 마태복음에 있다(마 26:24, 54, 56).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백부장이 고백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였다”(마 27:54)라는 말도 사실 사적인 말이었음에도 마태는 기록하였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 후 종교지도자들이 보인 태도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비교적 자세히 밝혔다(마 27:63~64, 28:11~15).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도 마태는 정확히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이와 같이 마태는 마가복음에 없는 20% 가량의 자료를 찾아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마태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음을 명료하게 밝혔다. 한마디로 마태의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수된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종교지도자들의 외시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자신의 무지함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전통과 권위를 지키려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자신의 죄를 뉘우침을 뿐 끝까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던 가롯 유다처럼 우리도 참된 회개 없지 않은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유기는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이번 선교를 통해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 30회에 걸쳐 이루어진 팀훈련과 언어훈련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사역지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 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전도지가 있어도 글을 못 읽는 영혼들을 위하여, 또 막바지에는 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전도지가 없어서, 우리는 주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마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전도지에 의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시는 주님과 교회에 정말 감사하게 되었다.

하루는 비가 와서 강물이 넘쳐 사역지로 향하는 길을 건널 수 없었다. 차를 돌려 그 자리에서 전도를 시작하자 잠시 후 그 다음 집부터는 물이 차 올라 쪽배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광경을 보고 팀원 모두가 주님의 예비하심에 놀랐고 감사드렸다.

우리에게 예비된 사역지는 곡식이 무르익어 알곡이 휘어져 있어 거두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았다. 그들에게 배역을 당해도 '아멘'으로 대답할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반복하여 전하였다. 영접을 거절하여도 예수님이 잔재라고 한국말로 외치며 답답한 가슴을 누르고 반복하여 전하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접하였다. 주께서 예비해 주신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전하도록 거리에서 만난 어린이의 두 손을 붙잡고 쫓고그리고 앉아 예수님을 전하니 '아멘' 하며 영접하고 찬양까지 따라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전하보다 귀한 주님 나라의 영혼 구하는 도구로써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다.

강윤옥(집사, 5교구)

##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증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했으며 교회에 나간다는 분들도 가끔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해도 어떤 본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곤 있었다.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세상적인 복에 관심이 많을 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길지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어른들은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히 복음을 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맑게 찬양하며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이 나라가 주의 보혈로 찬양하길 간구했다. 또한 선교기간 동안 팀원들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성령으로 하나되어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며 복음의 증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교훈련 기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훈련이 얼마나 중요하길지 다시 한 번 잊지 않을 수 있는 선교였다.

기독교인 인내하는 가운데 팀원들 모두가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며 어둠과 불신앙의 선교지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만왕의 왕임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삶이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임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 팀원 한분 한분이 그리스도의 군사, 복음의 증인이 되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상태(만수집사, 13교구)

##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3개월 간의 훈련을 통해 철저한 자기부인과 절대함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철저한 훈련과정을 통해 우리는 잘 훈련될 수 있었고, 기도로 준비하며 팀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단기선교에서 두 번 모두 공안에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데도 출발 전날 여러 팀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두 번의 선교 경험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첫날 사역에서는 지난 경험으로 복음을 전해서인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을 이해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평가회 시간과 밤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오지에서 소수민족을 만났을 때와 어느 마을에서 청년들과 남자아이들 통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선교가 금지된 선교지이나 그곳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도구로 사용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뿌리진 주님의 씨앗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에 전력했던 팀원들을 통해 많은 은혜와 믿음 안에서 하나되는 좋은 선교였습니다.

임대혁(집사, 4교구)

## 주님께 회개하고 감사할 뿐이다

외딴 시골 어느 깊은 골목에 들어서도 어딘가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는 듯 우리 팀원들을 바라보며 놀라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금방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어렵지 않게 마음의 문을 연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느 한 중년 남자가 조그만 성경책을 보이며 손을 잡아 어딘가로 이끈다.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한 쪽 벽에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할렐루야!" 무덤고 슬픈 날씨에 심신이 무척 고되었으나 그 광경을 보고 순간 반가워 피로가 싸 갔다. 가족을 불러모아 다시 한 번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해 주자 그 남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내 가슴도 뚫려버려 눈가가 뜨거워졌다. 두배 산골 초라한 집에서 많은 가족을 부양하며 살던 그는, 때 묻은 작은 신상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바라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듣고는 지체 없이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는 소경의 심정으로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이다.

주변에 교회는커녕 전혀 개발되지 않은 오지에 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을까? 그렇다면 그에게 기도를 해 주었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항상 복음에 갈급해 하며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가? 흐트러진 마음에 속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눈물 흘리던 그 남자의 겉개 탈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선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회개하고 감사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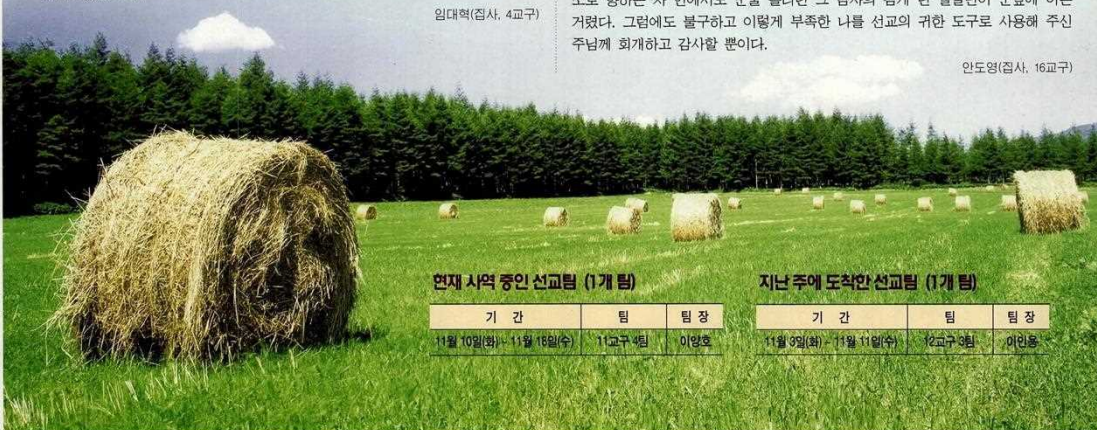
안도영(집사, 16교구)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1월 10일(화)~11월 18일(수) | 11교구 4팀 | 이영호 |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1월 9일(화)~11월 11일(수) | 12교구 3팀 | 이인용 |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대살로니가전서 5:18)

#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써 주시고, 영혼구원할 주수꾼 살아주시길 감사,  
오래 간구 응답하사 기쁨과 소망 주시길 감사,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감사.

한성하(집사, 밀마농협 찬양대)

친구 전도한 것 감사.

친구랑 싸우지 않았던 것 감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

김재은(초등2부)

예수님, 감사해요.

한해 동안 아프지 않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감사해요.

전은미(초등1부)

힘든 일을 겪게 되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감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

우리 가정이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

김윤영(대학부)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귀한 직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 주심 감사.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

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니 감사.

김하성(집사, 청년2부)

예수님 사랑한 것 감사.

찬양한 것 감사.

태어난 것 감사.

김하원(유치부)

이 글을 쓰기까지 살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

많은 죄악이나 질병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셔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노애원(고등부)

## 감사 편지

## Thanksgiving Letter

예수님, 저 예찬이예요. 제가 벌써 13살이네요. 저를 한 해 동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저의들을 지켜 주세요. 2010년에도 저를 지켜 주세요. 그럼 안녕이 게 세요. -조예찬(초등2부)

예수님 일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릴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늘 배운 내물이 최고의 선물 '사랑'이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이요?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꼭 천국 갈게요. -김지민(초등1부)

예수님 감사드려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안은재(유치부)

예수님 일년 동안 지켜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경연(초등1부)

저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에서 어우적대는 저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인간이라서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마음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몸과 맘은 이미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들이라하여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저를 세상의 악과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 제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주님! -이찬용(고등부)

2009년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 번 진리에서 저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제 마음 속에 말씀에 주시고 확증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며 죄악 된 본성을 겪어 안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어 비참함을 맛보았고, 그래서 주님이 더욱 귀한 존재인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면서도 생명을 주시고 금욕로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속에 하늘의 초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면목 없으나 은혜로 나아갑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영광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생명 되시고 존귀의 근원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윤용성(대학부)

##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누가복음 23:34)

## ●감사한 마음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저의 자아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일망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저를 놓아 버리시지 않고 항상 기도로 간구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심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 위임목사님 말씀이 "찬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고 기도가 찬송으로 나오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고 머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제 평생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항상 제 자신을 부인함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승준(집사, 19교구)

## ●예수님을 따라, 나 또한...

항상 바쁘게 지내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의 반복된 일상 속에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나의 최근 모습이었다. 예배에 의례적으로 참석하고 현실의 생활에 안주하려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의 청지기 말씀을 통

해 아무런 쓸모없는 나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애로해 하시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붙잡지 여기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허락하셨다. 십자가의 길이 좁고 땀과 고난이 있는 험한 길이란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주님의 이름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또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 또한 주변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다.

임태영(집사, 9교구)

##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번 청지기훈련도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부르면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기댔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변화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헌신하기를 다짐했다. 친족과 친구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며 꾸준히 권면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행복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 있다면 천국 다음으로 우리 교회이다. 타성에 젖고 이기적인 나의 삶은 십자가를 외면하기기 일쑤지만 나를 지키시는 주님께서는 십자가 복음으로 나의 삶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마침내 부흥과 은총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게 될 줄 믿는다.

류원현(집사, 7교구)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자신도 지난 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무지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시며 무지한 자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끼며 감격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을 것입니다.

박원환(원수집사, 15교구)

## 십자가의 길

## 그리스도인의 삶 Christian's Life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도, 애씀도 아니다.

The Christian's life is not by effort and not by struggle.

어떤 덕목들을 실천하려 하거나,

어떤 수순에 이르기 위해 시도하는 것도 아니다.

not merely by trying to put into practice certain maxims, or by trying to attain to a certain measure.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구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것이다.

but from beginning to end, and all together, it is a matter of knowing the Lord Jesus within.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3)

They will do such things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or me.(Jn. 16:3)

##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1463 | 박지운 | 13 | 대학부  |         |
| 1464 | 천세나 | 20 | 청년2부 | 김신국(1)  |
| 1465 | 임익환 | 13 | 장년1부 | 김복녀(13) |
| 1466 | 이지선 | 13 | 청년1부 |         |
| 1467 | 반종  | 25 | 외선부  | 김지선(7)  |
| 1468 | 이정화 | 16 | 청년2부 | 이보담(17) |
| 1469 | 남세현 | 6  | 청년1부 | 안재자(6)  |
| 1470 | 강동유 | 22 | 청년1부 | 함희정(1)  |
| 1471 | 정선주 | 7  | 청년2부 | 김현아(7)  |
| 1472 | 이시연 | 7  | 초등1부 | 김현아(7)  |
| 1474 | 이승환 | 11 | 대학부  | 심규호(20) |

\* 주일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